



또하나의 디딤돌

최근 정부직제개편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면서 출판산업팀의 이름이 출판인쇄산업과로 변경되었다.

일반인에게는 지나치기 쉬운 일이기도 하고 언뜻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인쇄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한걸음을 내딛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쇄단체 60년사를 통해 볼 때 정부직제에 인쇄부문이 신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물론 인쇄부문이 단독이 아닌 출판과 공동명칭이지만 인쇄업계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문화부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는데 오랜시간 출판명칭에 인쇄가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이나 정부, 심지어 인쇄업계 일부에서도 체념(?) 상태에서 이를 감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인쇄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요로에 인쇄의 역사와 함께 출판 역시 인쇄를 통해서만 꽃필 수 있다는 실정을 설명하면서 정부직제에 인쇄명칭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인쇄단체와 인쇄인들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식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으며 이번 정부직제개편에 인쇄업계의 여론을 강력히 반영해서 출판인쇄산업과라는 직제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법률이 제정되거나 정부직제에 인쇄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당장 무슨 혜택이 있는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전진을 향한 또 하나의 디딤돌 역할로 무리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최근 정부직제개편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면서 출판산업팀의 이름이 출판인쇄산업과로 변경되었다. 이는 인쇄업계 입장에서는 분명 한걸음을 내딛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쇄단체 60년사를 통해 볼 때 정부직제에 인쇄부문이 신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쇄업계의 형편상 인쇄문화산업의 중요성 주장이나 인적인프라, 홍보에 대한 열정 등 전체적인 불황에서 볼 때 출판업계 보다 앞서 왔다고 자신있게 내세워 말할 수 있는지 한번쯤 반성해 볼 일이다.

문제 제기나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일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 또한 큰 것만 내세우고 작은 일은 소홀히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건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인쇄업계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지도층 인사들이 현실은 외면한 채 관중석에 앉아서 남의 일처럼 이런저런 통 큰 소리나 한다면 그야말로 오리무중 속에서 좌초할런지도 알 수 없다. 웬만한 인쇄인이면 인쇄업계의 문제점을 쉽게 지적하곤 한다. 이제는 실천에 앞장서는 인쇄인이 많아져야 인쇄문화산업이라는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오세익 · 편집주간